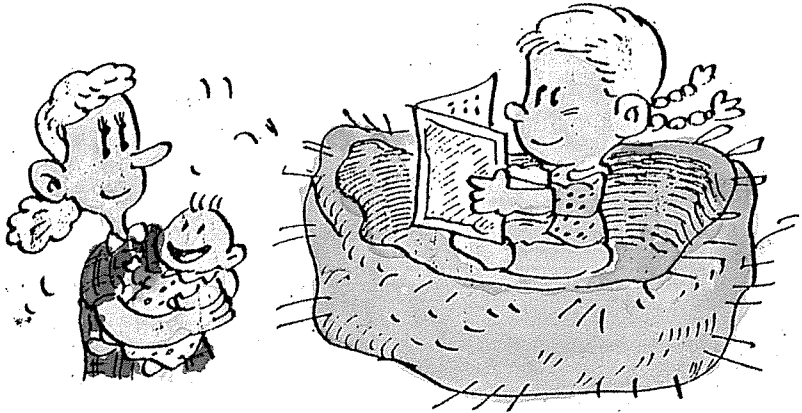


튼튼한 아기는 건강한 어머니로부터(2)



임신 초기에는 마음가짐을 각별히

태아병이란 태아 시기에 일어나는 선천성 이상 현상이다. 태아기에는 내외 중배엽이 완성되어 가는 임신 제4주부터 모든 장기의 조직이 완료되는 제10주까지의 시기이다. 어머니가 막 임신임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때이며, 아기도 인생의 첫발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은 아주 작은 장애가 발생해도 생명이 끊어질 수 있으며 다행히도 생명을 간신히 유지한다고 해도 보기 흉한 기형이 되고 어머니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이 태아기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임신생활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것은, 1942년에 그레그가 “어머니의 풍진에 의한 태아병의 발증”을 보고하면서부터이다. 그로부터 8년 후, 렌소의 thalidomide(탈리도마이드)사건이 일어남으로써 태아병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태아기에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자궁 환경인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해한 환경인자

자궁내의 유해한 환경인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인 것으로는 모친의 신체자체에 잠재해 있는 질환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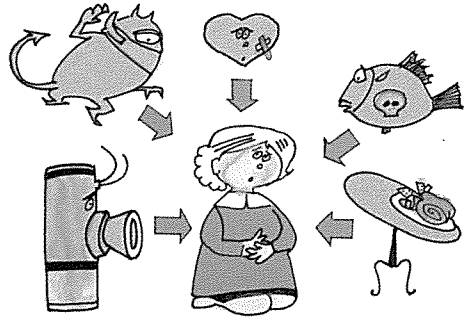
자궁 그 자체의 발육이상, 폐·심장, 그리고 췌장, 갑상선 같은 홀몬 계통의 이상에 이르기까지 태아의 기관형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그외에도 모친이 섭취하는 영양상태나

빈혈, 중요한 효소 공급의 부족이 태아의 발육에 상상 외의 타격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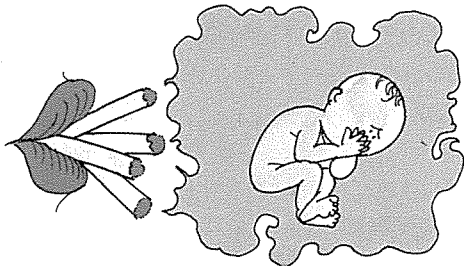
외적인 것으로는 모친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태내 이상 환경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풍진 이환(罹患), 탈리도마이드 같은 약제 복용, 수우병(水俣病) 같은 수은에 의한 공해, 그리고 방사선 장해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우리는 이런 요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무서운 담배의 해

그중 하나는 담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친의 정신생활이다.



담배의 해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여년 전 일본의 한 병원에서, 하루 30개비 담배를 피우던 산모가 무서운 미숙아를 낳았었는데, 그후 점차로 귀중한 증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든 증례에서 태아 발육부전인 저체중아, 심장기형을 수반한 각종 장기의 기형이 나타났다.

최근의 예로는, 결혼 전 17세경부터 흡연을 시작한 인기스타가 태아를 지나치게 못살게 굴어서 태아 상태로 있는지 40주가 되었을 때 체중이 1,500그램을 넘지 못했다. 니코틴과 일산화탄소에 의해 간장·비장 등이 침범당한 가운데서 아기가 성장했다. 태아발육 불량아의 발생기전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㉞